

## 20대 브랜드의 기본 스커트의 치수실태 및 패턴분석

구미란<sup>†</sup> · 이정순  
상명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 An Analysis of Size Conditions and Patterns of Ready to Wear Basic Skirts for 20's Women

Mi-Ran Goo<sup>†</sup> and Jung-Soon Lee

Dept. of Fashion Design, Sangmyung University  
(2003. 12. 23. 접수 : 2004. 5. 22. 채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of the size conditions of ready to wear skirts and analyze the patterns of them so that some educational patterns can be complemented.

For this purpose, the investigation of the size conditions was focused on the body sizes and products sizes of the care labels. The patterns of them produced through CAD have been classified into 24 items for the effective and practical analysis. Thus, 9 brands were selected and the basic skirts marketed in 2002 spring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Designs of the backs of the basic skirts produced by 9 brands have the similar designs with two darts. Regarding the designs of the front, 6 brands of them have the designs with no darts, 3 of them have the one with two darts. Designs of waists are composed of low waists and round belts.
2. Regarding the waist circumference as the basic composing elements of skirts, 55.6% of the patterns have the composition of the styles with larger front than the back but 33.3% of them have the same front as back. As to the hips, 77.8% of them have the composition of the patterns with larger back than the front. As for the comparison of waist lines, 55.6% of them have lower front lines than the back lines.
3. Regarding darts placement, it was moved to the side lines from the middle of 1/2 of waist lines, dart intake was 1.8~2.4cm, the length of the front darts was 7.8~9.5cm, and the length of the back darts 8.4~11.1cm.
4. The results of wearing-tests by the sensory evaluation, it showed that almost all the items of the results were satisfactory.

*Key words:* body size(신체치수), dart intake(다트량), dart placement(다트위치), products size(제품치수).

#### I.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제작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의복의 소비패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종전에 개개인이 직접 자신의 신체치수로 주문 제작하던 맞춤복의 형태에서 다수의 구매자를 가정하고 빠른 유행의 흐름을 반영한 기성복을 구입하

<sup>†</sup> 교신저자 E-mail : miho749@empal.com

는 경향으로 변화하였다. 오늘날에는 디자인과 더불어 체형에 적합한 의복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인체의 부위별 측정치 및 형태요소를 포함한 과학적인 체형연구는 물론 이 결과를 원형제작에 직접 연결시키는 작업이 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의복구성학 분야의 연구로 신체 적합성이 높은 의복제작을 위한 체형연구<sup>1,2)</sup>와 착용자의 체형에 잘 맞고 기능적이며 미적인 의복설계를 위한 연구<sup>3-5)</sup>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패턴과 생산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기성복 패턴은 많은 부분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기성복은 그 특성상 빠른 유행의 흐름에 맞닥처야 함은 물론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제품이므로, 소비자의 체형특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와 효율적인 치수설정을 의복 설계에 반영하여 구매자의 착용 만족감을 고려해야 한다. 의류치수 규격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이즈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생산자에게는 부적합한 사이즈 생산으로 인한 재고 누적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판되고 있는 기성복의 경우 범국민적인 표준 체위 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업체별로 독자적인 치수체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규격과 치수 분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품에 부착된 케어라벨(Care Label)의 신체 치수에 근거해 구매할 경우 혼선을 빚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에 부착된 케어라벨의 신체치수와 제품치수를 중심으로 구성상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치수 설정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용 패턴을 이용한 실물 제작시 착용감을 보완해 줄 수 있고 패턴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판되고 있는 제품의 기성복 패

턴을 수집 분석하여 참고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스킷이긴 넓은 연령층에 걸쳐 착용되고 유행을 타지 않으며 상반신 의복에 비해 형태는 간단하지만 허리, 복부, 엉덩이, 하지 등을 포함하므로 기능성과 미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하는 기본스킷트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대상 연령 브랜드는 20대 브랜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 브랜드의 2002년 spring에 출시한 디자인 현황을 알아봄으로써 기본 스킷트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본다.

둘째, 20대 브랜드의 기본 스킷트 디자인 경향을 알아본다.

셋째, 의류업체별 그레이딩 편차와 케어라벨에 기재된 신체치수를 알아보고 우리나라 기성복의 스킷트 관련 치수내역과 호수간 차이를 알아본다.

넷째, 의류업체의 기본 스킷트 패턴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시판되는 20대 브랜드의 기본 스킷트 패턴의 특징들을 살펴본다.

다섯째, 수집된 기본 스킷트 패턴을 실물 제작하여 20대 55 size의 소비자들에게 착용시켜 착용 평가의 결과를 분석해 본다.

### 2. 조사대상 브랜드

조사대상은 20대를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 9개를 선정하여 해당 업체의 패턴실장과의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고 기본 스킷트 패턴을 수집하였다. 조사대상 브랜드 선정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컨셉에 따라 패턴

1) 권숙희, "여대생의 의복설계를 위한 체형분류 및 인체제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2) 정명숙, "성인 여성 체형의 분류 및 연령별 특징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3) 추희경, "체형별 스킷트 원형연구: 평면재단과 입체재단의 비교를 통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4) 권실비아, "타이트 스킷트 원형의 관한 연구-기성복 원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5) 박영득, "타이트 스킷트의 동작 적합성에 관한 연구", *대한인간공학회지* 11권 2호 (1992), pp. 57-68.

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작위로 기본 스커트 패턴을 수집하여 패턴 분석시 브랜드가 추구하는 컨셉에 따른 차이점도 살펴볼 목적으로 조사대상은 (가나다순으로 배열) 감, 리씨, 로질리, 마리끌레르, 바닐라 B, 보브, 시스템, 이닌, 요하넥스이다. 조사대상 브랜드명은 업체의 요청에 따라 기재하지 않고 무작위로 배치하였으며 브랜드별 표기명은 2A~2I로 나타내었다.

조사기간은 2001년 12월~ 2002년 3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수집한 스커트 패턴은 논 스트레치(Non-stretch) 소재의 스커트 패턴으로, 해당 의류업체의 기본 사이즈(55 size)를 CAD SYSTEM으로 출력하여 분석하였다.

### 3. 조사내용

각 브랜드 패턴실장과의 인터뷰 내용은 패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작업지시서를 통해 2002년 spring에 출시된 스커트의 디자인 경향과 출시된 스커트 모델수를 조사하고 스커트 패턴 비교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엉덩이길이와 해당 업체의 스커트 패턴의 특이사항 등을 알아보고 패턴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해당 스커트에 부착된 케어라벨의 신체치수와 호수간 그레이딩 편차를 조사하였다.

### 4. 스커트 패턴의 분석 항목

수집된 스커트 패턴의 비교 방법은 스커트 앞·뒤중심에서 스커트 길이를 포함할 수 있는 직각선을

그린 다음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된 엉덩이 길이만큼 내려와 평행선(엉덩이둘레선)을 그린다. 이렇게 기본선이 완성되면 CAD SYSTEM으로 출력한 수집패턴의 엉덩이둘레선과 기본선에서의 엉덩이둘레선을 맞추어 총 24항목의 실측치수를 조사하였고, 분석항목은 <표 1>과 같다.

## 5. 착의 평가

### 1) 착의피험자

피험자 선정은 55사이즈를 입는 S대에 제화하는 20대 초반의 여학생 8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피험자 선정은 기본 스커트를 기성복으로 착용하였을 때의 맞음새를 평가할 목적이므로 기성복 스커트 구매 시 55사이즈를 착용하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피험자간의 신체치수의 편차가 약간 큰 경향이 있는 것이며, 피험자들의 평균 신체치수는 허리둘레 63.4cm, 엉덩이둘레 90cm, 키 161.2cm이다. 피험자들의 신체 치수표는 <표 2>와 같다.

### 2) 실험복 제작

실험복제작에 사용된 소재의 물성은 <표 3>과 같다.

### 3) 착의 평가

피험자 8명에게 9종류의 기본 스커트를 착용시켜

<표 1> 스커트 패턴의 분석항목

번호	분석항목	번호	분석항목	번호	분석항목
1	앞 허리둘레 / 2	9	앞 제1다트와 제2다트간격	17	뒤 제1다트량
2	뒤 허리둘레 / 2	10	뒤 제1다트와 제2다트간격	18	뒤 제2다트량
3	앞 엉덩이둘레 / 2	11	앞 제1다트길이	19	뒤 중심 지퍼다트량
4	뒤 엉덩이둘레 / 2	12	앞 제2다트길이	20	벨트폭
5	앞 허리중심 파임 · 올림량	13	뒤 제1다트길이	21	벨트높이
6	뒤 허리중심 파임량	14	뒤 제2다트길이	22	엉덩이길이
7	앞 중심→제1다트 간격	15	앞 제1다트량	23	뒤트임길이
8	뒤 중심→제1다트 간격	16	앞 제2다트량	24	스커트길이

〈표 2〉 피험자의 신체 치수

	피험자1	피험자2	피험자 3	피험자 4	피험자 5	피험자 6	피험자 7	피험자 8	평균
허리둘레	61	60	66	66	62	60.5	64.5	67.5	63.4
엉덩이둘레	87	91.5	90	92	90	92	88	90	90.0
신장	156	163	160	165	164	166	156	160	161.2

〈표 3〉 소재의 물성표

	섬유	조직	변수(Ne's)		밀도(올/5cm)		무게(g/m <sup>2</sup> )
			경사	위사	경사	위사	
광복	면 100%	평직	15.9	17.6	117.4	116.8	188.2

비교하였으며 검사항목은 선행연구<sup>6,7)</sup>를 참조하여 총 15항목 〈표 4〉를 선정하였다.

피험자 각자가 각기 다른 9가지의 기본 스커트를 입어보고 정적인 상태에서 주관적인 착용감과 거울로 비춰진 외관을 통해서 판단하였으며 평점방법으로는 5점 평점척도를 사용하였다. 피험자 스스로 평가하기 힘든 문항 4, 6, 11, 13은 의복구성학을 전공하고 현재 대학에서 의복구성학 과목의 강의 경력이 있는 5명의 검사자에 의해 평가되었다. 피험자와 검사자는 모두 사전 훈련을 실시하여 검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 Ⅲ. 연구 결과 및 고찰

#### 1. 브랜드별 스커트 생산 현황

20대 브랜드에서 기본 스커트가 전체 스커트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 본 결과, 스커트 디자인 356 모델 중 기본 스커트가 차지하는 양은 138 모델로 전체의 38.8%를 차지하고 있다. 기본 스커트 패턴에서 약간의 변화로 만들어지는 세미 타이트 스커트를 기본 스커트의 일원으로 본다면 전체 스커트 중에서 기본 스커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63%로 생산 비율상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기본 스커트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템 중 하나로 유행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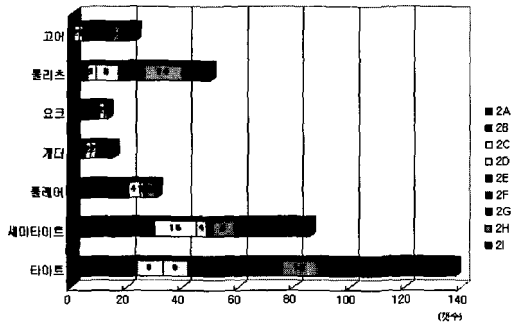
〈표 4〉 평가 항목

문항	
1	허리선의 위치는 적당한가?
2	허리둘레의 여유분량은 적당한가?
3	엉덩이둘레의 여유분량은 적당한가?
4	엉덩이둘레선은 수평인가?
5	앞중심선과 정중선은 일치하는가?
6	뒤중심선과 정중선은 일치하는가?
7	옆솔기선은 앞뒤폭을 균형있게 나누는가?
8	W.L~엉덩이 옆선의 여유분량은 적당한가?
9	옆솔기는 일직선이면서 수직인가?
10	앞다트의 위치와 길이는 적당한가?
11	뒤다트의 위치와 길이는 적당한가?
12	배 부분이 꺼지나 군주름은 없는가?
13	엉덩이 부분에서의 군주름은 없는가?
14	전체적인 여유분량은 적당한가?
15	전체적인 실루엣은 적당한가?

많은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생산되고 있다. 20대 브랜드의 2002년 봄 스커트 생산 현황 〈그림 1〉에

6) 김금화, "노년 여성의 하반신 체형 특성과 스커트 착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7) 김은주, "스커트 원형연구 -인체의 형태적 요소를 병용하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그림 1〉 20대 브랜드의 2002년 봄 스커트 생산 현황.  
나타나 있다.

2. 기본 스커트의 디자인 비교

벨트를 제외한 허리중심 파임량을 비교해 본 결과, 20대 브랜드의 경우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앞·뒤 중심 파임량을 가진 로우 웨이스트(Low Waist)의 힙본(Hip-bon) 스타일이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로우 웨이스트 라인은 적극성, 액티브한 느낌, 샤프함 그리고 스포티하고 활동적인 느낌의 미적효과<sup>8)</sup>를 수반한다. 다트의 유무에 있어서는 2A, 2D, 2I 3개사의 경우 앞·뒤 각각 2개씩의 다트가 있고 나머지 6개사는 앞판은 무다트, 뒤판은 2개의 다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다른 연령에 비해 20대 여성은 낮은 허리선(로우 웨이스트)을 선호<sup>9)</sup>하고 직선적이고 스포티한 스타일을 선호<sup>10)</sup>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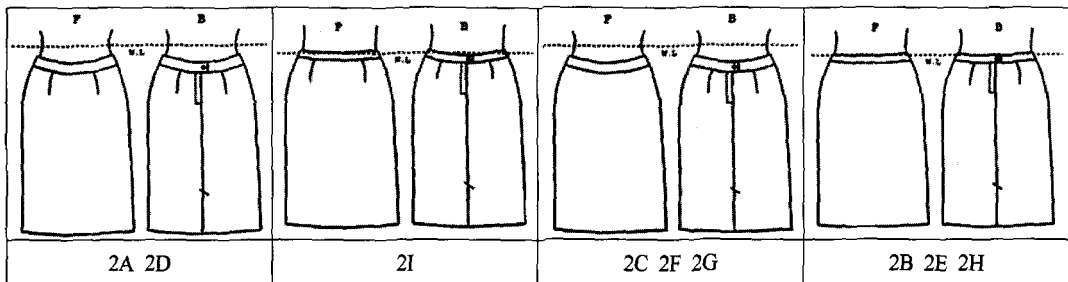
20대 브랜드의 기본 스커트 디자인 도식화는 〈그림 2〉와 같다.

3. 의류업체 케어라벨의 신체치수와 그레이딩 편차

사이즈 스펙은 각 업체마다 타겟과 디자인 특성에 맞추어서 정하게 되고 타겟의 연령층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40대·30대·20대마다 사이즈스펙이 크게 달라지고 비슷한 연령대를 타겟의 브랜드라고 해도 그 브랜드의 디자인 컨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 또 시대에 따라서도 사이즈스펙은 달라지기도 하는데 '90년대 중반부터는 옷이 상당히 작게 나오는 추세로 10년 전의 44사이즈는 지금의 55사이즈와 키를 제외하고는 비슷하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여성의 체형의 변화를 말해 주는 것으로 평균키는 계속 커지고 있고 몸은 가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옷을 직접 입어보지 않고 케어라벨에 표시된 신체치수만으로 의류를 구매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해 의류를 구매하는 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제시된 치수 정보에 대한 혼란은 더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의류 구입시 참고로 하는 케어라벨(Care label)의 신체치수를 알아보고, 브랜드별 그레이딩 편차를 비교해 보았다.

1) 케어라벨(Care label)의 신체치수

하의의 경우 케어라벨의 신체치수는 허리둘레와



〈그림 2〉 20대 브랜드의 기본 스커트 디자인 도식화.

8) 나가자와 스스무, 의복과 체형 - 인체구조·미적요소·패턴, 나미향, 김정숙 역 (서울: 예학사, 1999), pp. 268-269.  
 9) 정삼호, "성인여성의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10) 이선재, "한국여성의 가치관과 의복디자인 선호도와의 상관 연구", 한국여류학회지 11권 1호 (1987), pp. 29-42.

〈표 5-1〉 케어라벨(care label)의 신체치수 (단위: cm)

		2A	2B	2C	2D	2E	2F	2G	2H	2I	평균
20대	허리둘레	64	64	67	64	67	64	67	64	64	65
	엉덩이둘레	90	90	96	94	92	86	92	92	94	91.8
	드롭치	26	26	29	30	25	22	25	28	30	26.8

(\*참고: 드롭치-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

엉덩이둘레로 표시되어 있다. 각 브랜드의 케어라벨의 신체치수와 드롭치는 〈표 5-1〉에, 그리고 국민표준 채워조사에 의한 연령별 드롭치<sup>11)</sup>는 〈표 5-2〉에 나타나 있다. 허리둘레의 경우 64cm나 67cm의 2가지 경우로만 나타났고 엉덩이둘레는 86cm~96cm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영아, 三吉滿智子의 선행연구<sup>12)</sup>에서 나타난 미스 브랜드의 중심사이즈의 범위내에 포함되는 사이즈였다. 가장 작은 엉덩이둘레의 2F(86cm)는 20대 초반의 개성있는 이미지와 Fit한 스타일로 여성미를 표현하는 컨셉의 브랜드로 타 브랜드에 비해 엉덩이 둘레를 적게 둔 것으로 보이고, 드롭치가 가장 큰 2D, 2I는 20대 중반의 도회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표방하는 브랜드로 주로 캐주얼웨어보다는 세미정장 스타일이 많이 보이고 있다.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차이(드롭치)를 보면 20대 브랜드는 22~30cm 내에 있었고, 연구 브랜드들의 드롭치(26.8cm)와 1997년 국민채워조사에 의한

〈표 5-2〉 드롭치(Drop value)의 비교

			드롭치(hip-waist)
20대	국민 채워 조사 (1997)	20~24세 (N: 220)	23.5
		25~29세 (N: 253)	23.4
	연구 브랜드		26.8

20대 드롭치(23.4~23.5cm)와 비교해 보면 연구 브랜드들이 더 크게 설정되어 있었다.

### 2) 그레이딩 편차

그레이딩의 역할은 기본원형인 마스터 패턴의 실루엣을 손상하지 않고 사이즈표에 충실히 확대·축소하는 제도 작업으로 기성복은 되도록 많은 소비자에게 착용될 수 있도록 사이즈 설정이 되어야 한다.<sup>13)</sup> 그레이딩 편차에 있어서 8개사가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에서 동일한 량의 편차를 두고 있었다. 편차량은 3.2~5.1cm 정도이다. 길이 편차는 5개사가 길이 편차를 두고 있었으며 그 분량은 0.7cm이다. 길이 편차는 보통 호수가 커진다고 해서 길이가 길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편차량을 주더라도 0.7cm 정도로 약간만 조정하고 있었다. 국민표준채워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허리둘레 3cm, 엉덩이둘레 2cm 편차량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따르는 브랜드는 한 곳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기성복의 사이즈 스펙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sup>14)</sup>에서도 국민표준채워 조사를 참고하는 경우는 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 4. 수집한 스커트 패턴의 세부적 분석

수집된 스커트 패턴을 앞·뒤 중심선과 엉덩이둘레선을 기준으로 중첩시킨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첩도에서는 시각적으로 허리선, 다트, 엉덩이너비, 옆선곡률 등을 알 수

11) 이영숙, 제품설계를 위한 한국여성의 인체 치수 데이터 (서울: 신선사, 1999), p. 81.

12) 조영아, 三吉滿智子, "한국성인여자 기성복 브랜드의 타깃 연령 및 생산사이즈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복식문화연구 8권 4호 (2000), pp. 549-561.

13) 조영아, 패턴·그레이딩 (서울: 교학연구사, 1995), pp. 12-18.

14) 강숙녀, 김진선, "여성기성복의 사이즈 스펙 분석에 관한 연구", 원주전문대학논문총 28호 (1998), p. 12.

〈표 6〉 그레이딩 편차

(단위: cm)

			2A	2B	2C	2D	2E	2F	2G	2H	2I
20대	품	W	5.1	3.8	3.8	3.8	3.8	3.2	3.8	3.2	5.1
		H	5.1	3.8	3.8	3.8	3.8	3.2	3.8	3.2	3.8
	길이	0.7	0.7	0.7	0.7		0.7				

(\* 참고: W - 허리둘레, H - 엉덩이둘레)

있다. 패턴 중첩도에서 브랜드별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것은 허리선의 위치이다. 중첩도의 경우 각 브랜드의 허리선의 위치 차는 앞판 9.4cm, 뒤판 7.5cm로 나타났다. 따라서 20대 브랜드는 허리선 이동에 의한 디자인 변화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벨트는 모두 라운드 벨트였고, 옆선 곡률 정도는 대부분이 로우 웨이스트라인이었기 때문에 직선느낌이 컸다. 수집된 기본 스커트 원형 9개를 실측 치수로 환산하여 부위별로 검토하였다. 각 부위에 대한 실측 치수는 〈표 7〉에 나타나 있다.

## 1) 기본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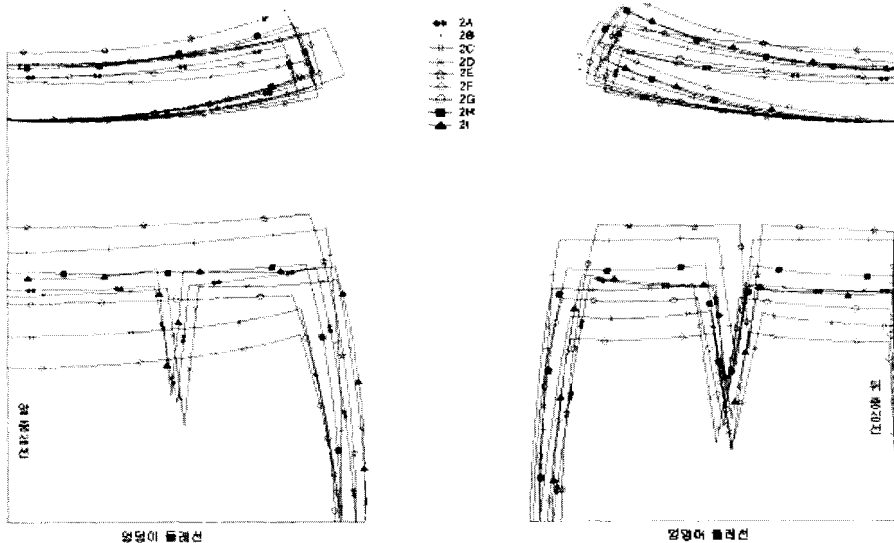
### (1) 허리둘레 항목

허리둘레는 다투수와 양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완성치수의 전체 허리둘레선을 비교한 후 각각 세부적인 분석을 하였다.

20대 브랜드의 허리둘레는 68cm~76cm로 나타났다. 브랜드별 허리둘레의 범위를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특히 작은 치수를 나타내는 1개사를 제외하면 69.6~71.8cm와 73.2~76cm로 나눌 수 있었다. 이렇게 캐러벨의 신체치수와 제품의 치수간에 큰 차이를 보인 것은 20대 브랜드의 기본 스커트 디자인이 대부분 로우 웨이스트이기 때문이다.

허리둘레의 앞·뒤차는 앞 허리둘레/2는 17~19.2cm, 뒤 허리둘레/2는 17cm~19cm로 나타났다. 허리둘레의 앞과 뒤의 차이에 따른 허리둘레 설정방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앞·뒤를 동일 치수로 두는 방법은 3개사(33.3%), 앞판을 크게 제도하는 방법은 5개사(55.6%)로 그 양은 앞판 0.4~1.2cm로 나



〈그림 3〉 20대 브랜드 스커트 패턴의 중첩도.

〈표 7〉 20대 브랜드의 기본 사이즈 실측치수

(단위: cm)

항목		원형		2 A	2 B	2 C	2 D	2 E	2 F	2 G	2 H	2 I	평균
		F	B										
W/4	F	17	19	17.8	18.3	19.2	18.4	17.2	19	18.1			
	B	17	18.6	17	18.3	18.1	17.2	18.6	19	17.8			
	허리둘레	68	75.2	69.6	73.2	74.6	71.2	71.6	76	71.8	72.4		
H/4	F	22.5	21.7	21.5	23.2	22.5	21.5	21.2	21.5	23.2			
	B	23.1	24	24	24.7	22.5	23.5	24.4	24	23.2			
	영당이둘레	91.2	91.4	91	95.8	90	90	91.2	91	92.8	91.6		
앞 뒤차	W/4		F:+0.4	F:+0.8		F:+1.1	F:+1.2	B:+1.4		F+ 1			
	H/4	B:+0.6	B:+2.3	B:+2.5	B:+1.5	0	B:+ 2	B:+3.2	B:+2.5	0			
허리중심 과잉량	F	-1.3	-1.3	-2.5	-0.9	-1	-5.5	-1	-1.5	-2	-1.9		
	B	-0.9		-1.7		-0.5	-3.5	-1	-1.1	-2.5	-1.6		
중심에서 제1다트간격	F	9.5			10.2					9.4	9.7		
	B	11.4	9.4	9	10.9	8.7	9.4	10	9.8	9.7	9.8		
제1다트에서 제2다트간격	F												
	B												
앞다트	제1	길이	7.8			9.5						8.5	8.6
		분량	2.4	0.4 여유	0.3 여유	2	0.6 여유		0.8 여유		1.8	2.1	
	제2	길이											
		분량											
뒤다트	제1	길이	9	9	9.5	11.1	8.6	8.4	8.8	9	8.7	9.1	
		분량	3	2.4	3.5	3.5	1.2	2.4	3	3.3	2.2	2.7	
	제2	길이											
		분량											
옆다트량	F	2.6	1.1	2.4	1.9	3.4	2.5	2.8	2.4	2.2	2.4		
	B	2.6	1.1	2.1	1.6	2.9	1.5	2.1	1.9	2.2	2.0		
지퍼다트량			0.4		0.4	0.6	0.7			0.3	0.5		
벨트폭		2.5	3	3.2	2.2	4.1	3.5	2.6	3.1	3.2	3		
벨트높이	F	2.4	3	2.4	1.7	3.2	2.2	1.5	3.2	3.1	2.5		
	B	1.2	2.6	2.7	1.8	1.1	3.9	1.5	3.5	3.1	2.4		
영당이길이		19	19	18	18	20.3	19	18	17.8	18	18.6		
뒤트임길이 (허리선부터 트임시각까지)		40.7	36.7	37.1	41.8	41.5	46.2	43.3	37.6	40	40.5		
스커트 길이		63.5	50.7	58.5	62.8	60.5	63.2	62.3	60.8	60	60.3		



타났다.

또 뒤판을 크게 두는 방법은 1개사(11.1%)로 나타났다. 2G는 1.4cm 뒤판을 더 크게 제도하여 다른 브랜드와 패턴설계상의 차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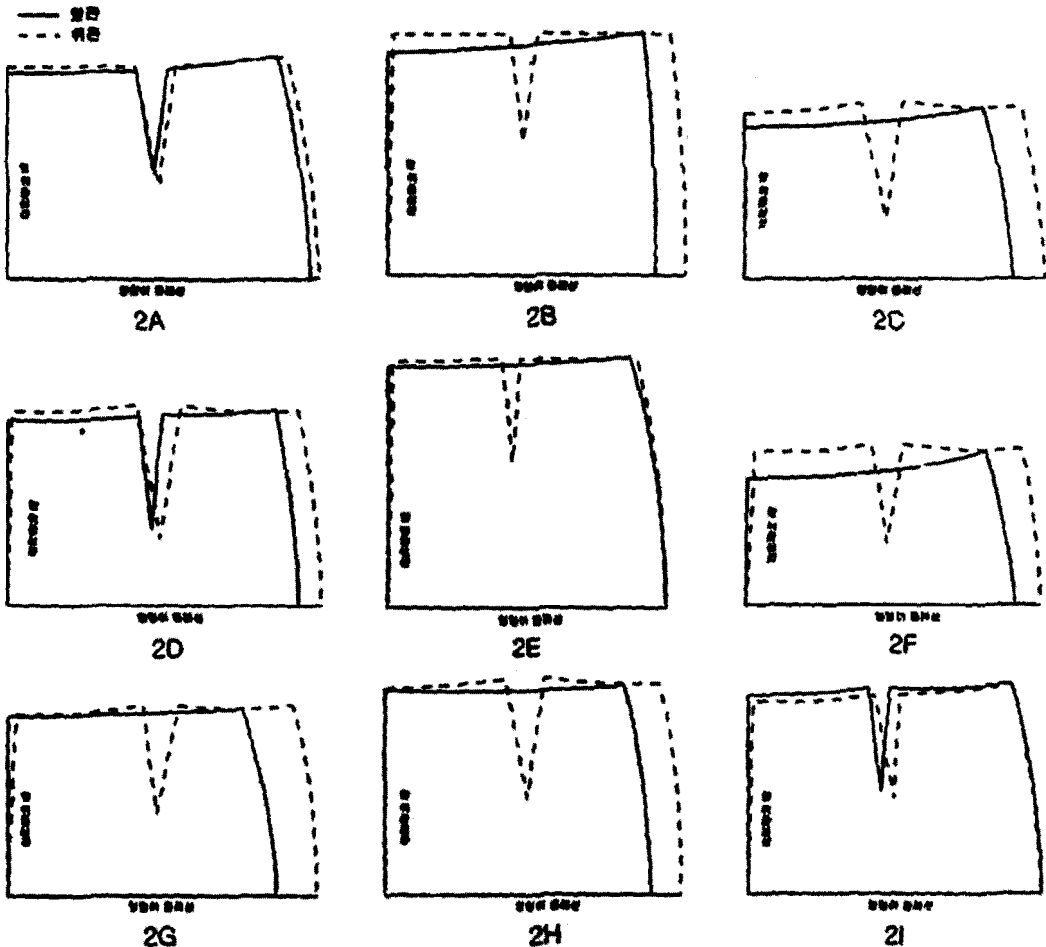
연구 브랜드의 앞·뒤차는 <그림 4>의 앞·뒤 중첩도에서 알 수 있다. 이 앞·뒤 중첩도에서는 앞·뒤 차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앞·뒤의 옆선 곡률(옆 다트량), 다트위치, 허리폭임의 차이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스커트의 옆선을 제도할 때 보통 앞·뒤를 같은 곡선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옆다트량이 같은 경우는 3개사(33.3%)로 조사되었고, 차이가 있는 경우는 6개사(67.7%)로 앞판의 옆

다트량이 더 크게 설정되어 있었고 그 차이량은 0.3~1cm 정도로 나타났다.

또 중첩도에서 보여지는 옆다트의 앞·뒤차를 살펴보면 2B, 2C, 2F, 2G, 2H의 경우 뒤판이 앞판보다 현저하게 크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판은 무다트이며, 뒤판의 다트는 접지 않고 펼쳐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이가 큰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스커트에 뒷지퍼를 달 경우 뒷중심선에서 적당량을 빼주기도 한다. 이는 상의의 뒷중심에서 착추의 굴곡과 유사하게 다트를 넣어주듯이 스커트의 뒷중심에서도 다트(지퍼다트)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이런 지퍼 다트는 뒷중심에 다트를 잡아줌으로 해서 의복의 fit성을 높임과 동시에 뒷지퍼를 달 때 지퍼머



<그림 4> 20대 브랜드의 앞·뒤 중첩도.

리에 의한 폭의 증가 현상을 대비해 머리 적정 분량을 빼주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지퍼다트를 살펴보면 앞판을 크게 설정하고 지퍼다트가 있는 경우는 4개사(44.4%)로, 지퍼다트량은 0.4~0.7cm로 나타났다. 2B는 원래 앞뒤의 허리를 동일한 치수로 설정했다가 뒤중심에 지퍼다트로 앞뒤차이분량만큼 빼졌기 때문에 지퍼다트만큼 앞판이 크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2D는 지퍼다트를 설정한 다음 앞·뒤에 동일한 허리둘레를 설정해 주었다. 이처럼 지퍼다트는 미리 설정한 것과 허리둘레를 결정한 다음 설정하는 것에 따라 앞 뒤판의 허리둘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엉덩이 둘레항목

엉덩이둘레의 범위는 1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90~92.8cm로 묶여질 수 있다. 범위에서 제외된 2D는 브랜드 컨셉상 거의 모든 실루엣이 Box형이 많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에 비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엉덩이둘레의 앞·뒤 차를 살펴보면 앞 엉덩이둘레/2는 21.2~23.2cm로 나타났고, 뒤 엉덩이둘레/2는 22.5~24.7cm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엉덩이둘레의 앞·뒤판 차이를 살펴보면, 2개사(22.2%)가 앞·뒤판을 동일한 치수로 설정하고 있었고, 7개사(77.8%)가 뒤판을 크게 설정하고 있으며, 그 치수는 0.6~3.2cm까지 다양하였다.

20대 브랜드의 77.8%가 뒤판을 크게 설정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엉덩이둘레출부에 대한 적당량을 패턴에 적용시켜준 것으로 보인다. 허리둘레의 앞·뒤차에서 5개사가 앞판을 크게 제도하였고 엉덩이둘레에서는 7개사가 뒤판을 크게 설정하고 있는 점은 교육용 패턴의 패턴제도법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 (3) 허리관련 항목

허리 관련 항목은 크게 허리중심의 파임량, 벨트 달림의 위치, 벨트폭과 높이로 나누어진다. 허리중심의 파임량은 인체 특징에 따라 틀려지기도 하지만, 해당 브랜드의 컨셉과타겟, 그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 그 양은 틀려진다.

20대 브랜드의 앞·뒤 허리중심에서의 파임량을

비교해 보면, 5개사(55.6%)는 앞 허리선이 뒤 허리선보다 많이 빠져 있고, 2개사(22.2%)는 앞 허리중심선에서 일정분량을 내려주는데 반해 뒤 허리중심선에서는 전혀 깎지 않았다. 그리고 앞 허리중심선보다 뒤 허리중심선을 더 깎아주는 방법은 1개사(11.1%), 앞·뒤허리를 동일한 분량으로 깎아주는 방법은 1개사(11.1%)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학생들의 스커트 실물 제작 시 체형의 특징과 로우웨이스트의 정도 등에 따라서 참고하여 조정하여야 할 내용으로 생각된다.

〈표 8〉은 20대 브랜드의 벨트 달림 위치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벨트를 포함하고도 허리 깎임분이 있는 경우(○), 엉덩이 길이내에서 허리가 약간 깎이면서 허리선 위에서 벨트가 달리는 경우(△), 나머지는 허리선 위에서 벨트가 달려 엉덩이길이내에서는 벨트가 달리지 않는(X) 유형이었다.

20대 브랜드 5개사 55.6%가 엉덩이 길이내에 벨트를 포함하고도 허리파임분이 있는 경우인 전형적인 로우 웨이스트형태(○)를 보이고 있었고, 나머지 4개사 44.4%는 엉덩이 길이내에서 허리가 약간 깎이면서 허리선 위로 벨트가 달리는 경우(△)로 나타났다. 허리파임량을 살펴보면 4개중 3개 브랜드가 벨트폭의 약 1/2 정도를 파고 있었다. 이것은 벨트폭의 중간이 제 허리둘레선 위치에서 놓여진다고 볼 수 있다. 벨트폭은 2.5~4.1cm로 차이가 있었다.

벨트높이는 앞·뒤 중심선에 대한 수평선에서 앞선 벨트까지의 높이를 잴 것으로 라운드벨트의 곡률 정도를 알 수 있다. 벨트높이가 크면 클수록 벨트의 라운드가 많이 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0대 브랜드 9개사 모두 라운드 벨트를 나타내고 있었다. 앞·뒤 똑같은 분량을 처리해 벨트 높이가 같은 것은 계속 오차(0.4cm)를 포함해서 6개사(66.7%), 앞 벨트높이가 큰 경우는 3개사(33.3%)로 나타났다. 앞 벨트높이가 큰 것은 앞 허리파임량이 뒤보다 많은 것에 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벨트폭은 2.2~4.1cm로 나타났다.

〈그림 5〉는 벨트 중첩도를 나타낸 것이다.

## (4) 길이항목

길이항목은 엉덩이길이, 뒤트임길이, 스커트길이에 대한 비교항목으로 스커트길이의 경우 니자인에

〈표 8〉 20대 브랜드의 벨트 달림 위치

(단위 :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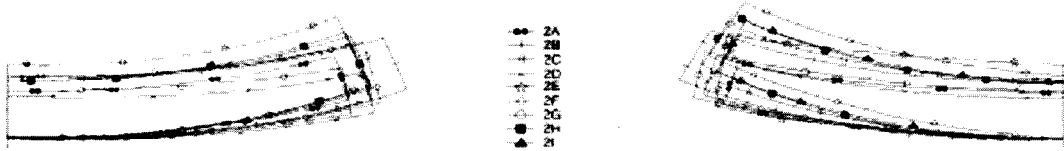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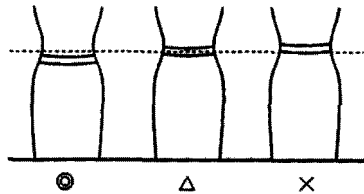
		2A	2B	2C	2D	2E	2F	2G	2H	2I
벨트 폭		2.5	3	3.2	2.2	4.1	3.5	2.6	3.1	3.2
엉덩이길이내 벨트 유무		◎	△	◎	◎	△	◎	◎	△	△
허리 폭임량	F	-1.3	-1.3	-2.5	-0.9	-1	-5.5	-1	-1.5	-2
	B	-0.9	0	-1.7	0	-0.5	-3.5	-1	-1.1	-2.5

(\* 참고 - : 내림 + : 올림의 표시)

◎ : 엉덩이 길이내에 벨트가 포함하고도 허리잡임분이 있는 경우(low waist)

△ : 엉덩이 길이내에서 허리가 약간 작아면서 허리선위로 벨트가 달리는 경우

X : 내추럴 웨이스트라인(natural waist line)위에서 벨트가 달리는 경우



〈그림 5〉 벨트 중첩도.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기도 하다. 엉덩이 길이는 17.8~20.3cm로 변화의 폭이 넓었고 평균은 18.6cm 정도였다.

뒤트임은 뒤 허리선에서 트임 시작까지를 재 것으로 그 길이는 39.3~46cm로 나타났고 평균 42.1cm 정도로 조사되었다. 타이트 스커트의 뒤트임은 디자인상의 한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기능성에 그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시작위치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여성복의 경우 뒤허리 중심에서 42~43cm 아래 위치에서 시작하며 이보다 낮은 위치일 때는 기능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한다.<sup>15)</sup>

## 2) 다트(Dart)

기본스커트에서 다트수와 위치는 스커트의 디자인과 패턴상의 상이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스커트의 실루엣, 입은 사람의 체형적 단점을 보완해 주기도 하고 강조하기도 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sup>16)</sup>

다트 수는 2~8개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앞·뒤에 각각 2개씩 다트가 있는 경우는 3개사(33.3%), 뒤다트 2개만 있는 경우는 6개사(66.7%)로 조사되었다.

다트의 위치를 살펴보면, 앞판 다트가 있는 3개사 중 2개사가 W/2의 중간지점에서 옆선쪽으로 약 1cm 가량 이동된 위치에, 나머지 1개사는 앞 W/2에서 거의 중간지점에 다트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뒤판의 경우에는 각 업체마다 다양하게

15) 이승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승렬의 패턴이야기 I (서울: 기술과 감성, 1999), p. 21.

16) 강순희, 의복의 입체구성 (서울: 교문사, 1994), pp. 32-33.

나타나는데 7개사(77.8%)는 W/2의 중간에서 옆선쪽으로 이동되어 있으며, 1개사(11.1%)는 중간에, 그리고 뒤 중심쪽으로 이동되어 있는 경우는 1개사(11.1%)로 조사되었다.

20대 브랜드의 다트 위치는 앞판에서는 W/2의 중간지점이나 이동량이 1cm내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뒤판에서는 77.8%가 옆선쪽으로 이동되어 위치하고 있었다.

각 브랜드의 다트 길이와 분량은 앞판 다트가 있는 3개사는 다트 길이는 7.8~9.5cm, 다트 분량은 1.8~2.4cm로 나타났다. 그리고 앞판 무다트인 6개사 중 4개사에서 0.3cm~0.8cm까지 이세(ease)분이 들어가 있다. 이 이세(ease)분은 다트가 없는 로우 웨이스트에서 약간의 오그림분으로 처리되어 허리부위에서 엉덩이부위에 걸친 복곡면 형성에 도움을 주게 된다. 뒤 다트길이는 8.4~11.1cm이고 평균은 9.1cm로 선행연구<sup>17)</sup>보다 짧게 나타났다. 이것은 시판되고 있는 기성복의 기본스커트가 로우 웨이스트이기 때문에 다트 길이가 기본 스커트보다 다소 짧아진 것이다.

다트의 방향은 허리단면에 대해서 대체로 방사선 형태로 설정된다. 본 연구에서의 다트방향은 허리둘레의 기초선에서 수직으로 내렸을 때 평행 이동된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먼저 앞판 다트를 살펴보면, 기초선에서 수직으로 내린 선을 다트 중심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앞 다트가 있는 3개사 중 2개사(66.7%)였고, 다트 방향이 옆선쪽으로 이동된 것은 1개사(33.3%)로 이동량은 0.2~0.3cm 정도이다. 뒤판의 경우는 3개사 2B, 2F, 2H(33.3%)가 기초선의 수직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다트 방향이 옆선쪽으로 0.2~1cm 정도 이동된 것은 5개사(55.6%)로 나타났다. 그리고 2G(11.1%)는 특이하게 중심쪽으로 다트 끝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다트의 방향은 업체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다트 중심이 너무 곧게 세워질 경우 옆 허리선이 눈에 띄게 되고 또 체형과의 밸런스가 좋지 않은 것<sup>18)</sup>으로 본다면 제품 완성사 2B, 2F, 2H의 세 브랜드는 다트의 표현에 있어서 어색해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 3) 제품의 완성치수와 케어라벨의 신체치수와의 차이

일반적으로 신체 치수는 교육기관이나 맞춤복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완성 치수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성복 업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치수라고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 완성치수와 케어라벨에 기재되어 있는 신체치수의 차를 차이량이라고 표현하였다. 20대 브랜드의 허리둘레의 차이량은 2.6~12cm로 다양하였고, 허리둘레선의 완성치수와 신체치수간의 차이량은 평균 7.4cm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4.13cm의 차이량을 보인 선행연구<sup>19)</sup>와 비교했을 때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이 20대 브랜드가 로우 웨이스트이기 때문에 케어라벨에 표시된 허리둘레의 신체치수와 완성된 스커트의 허리둘레 치수와의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엉덩이둘레는 허리둘레와는 다르게 디자인에 따른 변화가 없는 부분 중의 하나이다. 20대 브랜드는 -5~4cm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차이량의 평균은 -0.2cm로 나타났다. 원영옥<sup>20)</sup>은 보통 엉덩이둘레에 4cm의 차이량이 적당하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볼 때 2F를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들은 대부분이 차이량이 작게 설정되어 완성제품을 착용했을 때 적절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된다.

### 5. 실물제작에 따른 착의 평가

착의 평가 결과, 분량 10(앞다트의 위치와 길이)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3.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표준편차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착용시 만족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55 size를 착용하는 20대 여성들의 체형이 키가 크고 마른 체형들이 많았기 때문에 착용시의 불만족 요인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량별 착의평가 결과(표 9) 특히 문항 12(배부분이 끼거나 군주름)와 문항 5(앞중심선과 정중선의 일치)에서 4.06, 4.03으로 그리고 문항 1(허리선의 위치), 문항 11(뒤다트의 위치와 길이), 문항 6(뒤중심선과 정중선의 일치)등이 3.85 이상으로 좋은 평가를

17) 권실비아, *Op. cit.*, pp. 36-41.

18) 강순희, *Op. cit.*, p. 35.

19) 강숙녀, 김진선, *Op. cit.*, p. 12.

20) 원영옥, *의복구성의 기초와 응용* (서울: 경춘사, 1997), pp. 119-121.

〈표 9〉 문항별 착의 평가 결과

구분	2A		2B		2C		2D		2E		2F		2G		2H		2I		평균	F-Test F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문항 1	4.13	0.60	3.63	0.86	4.13	0.60	3.50	0.71	3.25	0.97	4.25	0.43	4.25	0.66	4.00	0.71	4.13	0.60	3.92	1.912
문항 2	3.75	0.66	3.50	1.12	4.00	0.71	3.25	1.09	3.13	0.93	3.50	0.71	4.00	1.00	3.75	0.43	4.50	0.50	3.71	1.834
문항 3	4.00	0.87	3.88	0.78	4.25	0.83	3.00	0.71	2.63	1.11	3.63	0.99	3.63	0.99	3.88	0.93	4.25	0.66	3.68	2.693
문항 4	4.00	1.00	2.63	1.11	4.38	0.99	2.75	0.83	2.75	1.20	4.63	0.48	4.00	1.32	3.25	0.66	3.25	0.43	3.51	4.500*
문항 5	4.38	0.70	4.00	0.71	4.25	0.83	3.50	0.71	3.88	0.78	4.13	0.78	3.63	0.99	4.25	0.66	4.25	0.66	4.03	1.115
문항 6	3.75	0.83	4.00	0.71	4.25	0.83	3.38	0.70	3.50	0.71	3.88	0.78	3.75	0.97	4.13	0.60	4.00	0.87	3.85	.927
문항 7	4.00	0.87	3.00	0.50	3.88	0.78	3.13	1.05	3.25	0.66	3.50	0.87	4.25	0.83	4.00	0.71	4.00	1.12	3.67	2.056
문항 8	3.75	0.83	3.75	0.83	3.88	0.60	2.88	0.60	2.88	0.93	3.88	0.78	3.38	1.22	4.25	0.83	3.88	0.60	3.61	2.320
문항 9	3.88	1.17	3.50	0.87	3.63	0.70	3.75	0.97	3.38	1.22	3.88	1.05	4.13	1.27	4.00	0.87	3.75	0.66	3.76	.398
문항10	4.13	1.05	0.00	0.00	0.00	0.00	3.38	0.4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75	0.97	1.25	98.060*
문항11	4.00	0.87	4.00	0.87	3.50	0.87	3.50	0.50	3.75	0.66	3.75	0.66	4.00	0.50	4.25	0.66	4.00	0.87	3.86	.841
문항12	3.88	0.78	4.50	0.50	4.50	0.50	4.00	0.87	3.25	0.97	4.13	0.78	4.13	0.60	4.00	0.87	4.13	0.60	4.06	1.772
문항13	4.00	0.71	4.25	0.66	3.88	1.05	4.00	0.87	3.00	1.12	3.50	1.00	3.50	1.22	3.75	0.97	3.50	0.50	3.71	1.145
문항14	3.50	1.00	3.63	0.86	3.75	0.66	3.00	0.71	3.00	1.22	3.63	0.99	3.38	1.11	4.13	0.93	3.75	0.83	3.53	1.047
문항15	4.00	0.87	4.25	0.83	4.38	0.70	2.63	0.70	3.63	0.48	3.75	0.66	3.88	0.78	3.88	0.93	3.25	0.66	3.74	3.577

\*  $p < .001$ .

나타내었다. 이러한 점에서 대부분의 스커트가 로우 웨이스트로 되어 있어서 배부분의 여유분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과 20대 여성들의 체형이 배가 없는 마른 체형이 주를 이루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특히 문항 1과 문항 6의 높은 평가를 통하여 기성복의 기본 스커트의 경우 뒷모양의 태가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 문항에 대한 t-test 결과에서 문항 4(엉덩이둘레선의 수평여부)와 문항 10(앞다트의 위치와 길이)에서 브랜드 간에 유의차가 나타났는데 문항 4는 제품의 엉덩이둘레 완성치수가 피험자의 신체치수와 같거나 작은 제품이 있었고 기본적인 엉덩이둘레 여유를 포함한 제품들에 의한 차이로 나타난 결과이며, 문항 10은 앞 다트가 없는 브랜드간의 차이로 나타난

결과이다.

전체적인 착의평가의 결과는 실제 허리둘레보다 로우 웨이스트이기 때문에 허리는 크고, 엉덩이둘레는 선행연구의 결과보다 작게 설정되어 있어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거의 모든 항목에서 대체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시판되고 있는 스커트들은 대부분 착용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실제 착용하는 스커트를 연령 집단별로 여유분의 주관적 착용감을 알아본 이소영<sup>21)</sup>의 연구 결과인, 청년여성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허리둘레에는 여유가 있고 엉덩이 둘레는 여유가 작은 스커트일 때 '잘 맞는다'라고 느낀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스커트제작은 일괄적인

21) 이소영, "스트레이트 스커트의 여유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기준에 맞춰 제작되기 보다는 그 시대의 유행의 경향과 착용 연령대의 성향에 따라 달라져야 착용 만족도가 높은 스커트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대 브랜드의 여성복 중 기본스커트를 대상으로 현재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케어라벨의 신체치수와 제품치수를 중심으로 구성상태를 파악하고, 기성복패턴을 수집, 분석하여 연구중심의 교육용 패턴을 이용한 실물 제작 시 착용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20대 브랜드 9개를 선정하여 해당 브랜드의 2002년 봄 시즌에 출시된 기본스커트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02년 봄에 출시된 스커트 디자인 유형은 기본 스커트 (세미타이트 스커트 포함)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스커트 디자인을 비교해 보면 67%가 앞판이 무나트, 뒤판은 2개의 다투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브랜드는 앞·뒤 2개의 다투로 구성되어 있었다. 웨이스트의 형태는 로우 웨이스트의 디자인이 많았다.
2. 케어라벨에 기재된 신체치수는 허리둘레가 64cm나 67cm로 나타났고, 엉덩이둘레는 86~96cm로 나타났다. 그레이딩 편차는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에서 동일 편차를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55.6%가 3.8cm의 편차를 두고 있었다. 조사 대상업체 중 국민표준체위조사의 편차를 그대로 적용한 브랜드는 조사되지 않았다.
3. 20대 브랜드의 기본스커트 패턴에서 기본 구성 요소로서 허리둘레 항목에서는 로우웨이스트의 라운드 벨트로서 신체치수와 제품치수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9개 브랜드 중 5개 브랜드(55.6%)가 허리둘레에서 앞판을 크게 제도하는 제도법을 사용하고 있었고 앞·뒤를 동일 치수로 두는 경우는 3개 브랜드(33.3%)로 조사 되었다. 엉덩이둘레 항목에서는 7개 브랜드(77.8%)가 뒤판을 크게 설정하고 있었으며, 5개 브랜드(55.6%)는 뒤 중심선에서 지퍼 다투량을

주는 제도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허리관련 항목으로 허리 중심파임량은 5개 브랜드(55.6%)가 앞허리선이 뒤허리선보다 많이 빠져 있으며 전형적인 로우웨이스트 형태의 라운드벨트를 나타내고 있었다.

4. 20대 브랜드의 기본 스커트 패턴에서 다투 관련 항목은 다투 위치는 w/2의 중간 지점에서 옆선 쪽으로 이동한 위치이며, 다투 분량은 1.8~2.4cm, 앞 다투 길이는 7.8~9.5cm, 뒤 다투 길이는 8.4~11.1cm로 기본 다투 길이보다는 약간 짧은 경향이었으나 이는 로우웨이스트이므로 나타난 결과이다. 그리고, 앞판 무나트의 경우는 0.3~0.8cm의 ease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5. 착의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대체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시판되고 있는 기본 스커트의 경우 대부분 착용 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수집된 패턴의 수가 현재 유통되고 있는 브랜드 수에 비해 극히 작으므로 20대 브랜드의 전체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수집한 패턴을 일정한 기준선에 의해 평면적으로 비교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봉제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수치의 차이와 inch를 cm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오차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 참고문헌

강숙녀, 김진선 (1998). "여성기성복의 사이즈 스펙 분석에 관한 연구". 원주전문대학술논총 28호.

강순희 (1994). *의복의 입체구성*. 서울: 교문사.

권숙희 (1994). "여대생의 의복설계를 위한 체형분류 및 인대제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실비아 (1999). "타이트 스커트 원형의 관한 연구 -기성복 원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금화 (1999). "노년 여성의 하반신 체형 특징과 스커트 착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주 (1990). "스커트 원형연구 -인체의 형태적 요소를 병요하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
- 나가자와 스스부 (1999). 의복과 체형 -인체구조·미적요소·패턴-. 나미향, 김정숙역. 서울: 예학사.
- 박영득 (1992). "타이트 스커트의 동작적합성에 관한 연구". *대한인간공학회지* 11권 2호.
- 원영옥 (1997). *의복구성의 기초와 응용*. 서울: 경춘사.
- 이선제 (1987). "한국여성의 가치관과 의복디자인 선호도의와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1권1호.
- 이소영 (1996). "스트레이트 스커트의 여유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렬 (1999). *실부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승렬의 패턴이야기 1*, 서울: 기술과 감성.
- 이영숙 (1999). *제품설계를 위한 한국여성의 인체치수 데이터*. 서울: 신전사.
- 정명숙 (1994). "성인여성 체형의 분류 및 연령별 특징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삼호 (1989). "성인여성의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영아 (1995). *패턴·그레이딩*, 서울: 교학연구사.
- 조영아, 三吉滿智子 (2000). "한국성인여자 기성복 브랜드의 타깃 연령 및 생산사이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복식문화연구* 8권 4호.
- 추회경 (1994). "체형별 스커트 원형연구: 평면재단과 입체재단의 비교를 통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